천리포수목원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김현숙, 이상명 박사

천리포수목원은 1979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Carl Feriss Miller, 1921~2002)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으로 규모는 62만㎡이며 특히 1996년에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 개인의 소유권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목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은 물론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들어온 도입종까지 총 1만 5,894종류의 식물분류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2001년부터 수목원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았다. 2013년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산림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 2014년에 환경부로부터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천리포수목원은 설립 이후 연구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비개방 수목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일에 7개의 관리 지역 중 첫 번째 정원인 밀러가든(Miller Garden)을 최초로 개방하였다.

천리포수목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 종은 목련(400 품종), 호랑가시나무(370 품종), 무궁화(250 품종), 동백나무(380 품종), 단풍나무(200 품종)등 주요 5속(屬) 외에도 곰취, 앵초, 노루귀, 복수초, 노루오줌 등이 있다. 특히 천리포수목원은 세계 최다 목련 수집 수목원이며, 미국 홀리(Holly)학회의 인증수목원이다.

수목원 내 주제원은 원추리원, 수생식물원, 동백원, 수국원, 습지원, 왜성 침엽수원, 윈터가든, 호랑가시나무원, 우드랜드, 무늬원, 억새원, 암석원, 마취목원, 자생식물원, 노루오줌원, 만병초원, 클레마티스원 등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9월 21일에는 환경부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대상 식물은 가시연꽃, 노랑붓꽃, 매화마름, 미선나무 등 4종이다(인용 ; 백과사전, 다음).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는 ?

Science Museum과 Science Center 차이는 ?

Magnoliaceae 목련과

■ magnolia family, two subfamilies: Magnolioideae, of which *Magnolia* is the most well-known genus, and Liriodendroidae, a monogeneric subfamily, of which *Liriodendron* (tulip trees) is the only genus.

■ stamens and pistils in spirals on a conical receptacle, early condition for angiosperms.

■The flowers also have parts not distinctly differentiated into sepals and petals, are known as tepals.

■ 219 species in seven genera, North America, Mexico and Central America, the West Indies, tropical South America, southern and eastern India, Sri Lanka, Indochina, Malesia, China, Japan, and Korea.

▪ 크고 탐스러운 방사상칭 꽃이 피는 교목 또는 관목, 수술 다수, 암술 다수

Liriodendron tulipifera 목련과-튤립나무

우리나라 일반적인 목련 종류

목련과

1. 잎은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고 열매는 골돌과이다(목련아과)
   2. 수술과 암술이 서로 접근하여 있다.---------- 목련속
   2. 암술과 수술이 서로 떨어져 있다.---------- 초령목속(초령목)
1. 잎은 가장자리가 갈라지고 열매는 시과이다. ---- 튜립나무아과(튜울립나무)

목련속

1. 낙엽수이다. ---------- 2
 2. 꽃은 잎보다 늦게 핀다
    3. 꽃은 위로 향한다. ---------- 일본목련
    3. 꽃은 밑을 향한다. ---------- 함박꽃나무
 2. 꽃은 잎보다 빨리 핀다
    3. 꽃은 흰색이다. ---------- 4
       4. 꽃잎과 꽃받침잎은 거의 같은 길이이고 6장이고 흰색이다. -- 백목련
       4. 꽃잎은 꽃 받침잎보다 길고 6-9장이고 흰색이지만
          밑부분에 붉은 줄이 있다. ---------- 목련
    3. 꼬은 자주빛이다. ---------- 자목련

1. 상록수이다. ---------- 태산목

우리나라 자생종(함박꽃나무, 목련), 중국산(자목련, 백목련), 북미산(튜울립나무, 태산목), 일본산(일본목련, 초령목) 그 외에 수많은 품종이 유입되어 우리의 주변에 식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련 종류가 종자의 결실율이 떨어지는데 일본목련은 결실율이 좋고 종자의 산포 능력이 뛰어나 최근 도심 근교 산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수십년후에는 야산에 일본목련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목련

함박꽃나무

백목련

태산목

일본목련

목련

백목련

자목련

함박꽃나무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도는 태안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리아스식 반도로 우리나라 여섯번째 크기의 섬이다. 조선조에 조운을 위한 운수 수단으로 운하를 만든 것이 인공섬이 된것이며, 1960년 연육교를 놓아 육지와 이어졌다. 안면도 휴양림은 "안면송" 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진 천연 소나무가 국내에서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 소나무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옛날부터 국가에서 보존 관리하는 숲으로, 1965년도 부터는 지방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전시관에는 목재 생산 과정과 목재의 용도, 산림의 효용가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전시해 놓았다. 야외 수목원에서 약용수목원, 생태습지원, 양치식물원, 상록수원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학습하기에 좋게 조성되어 있다

소나무 이야기

요즈음 개화기를 맞은 소나무꽃가루가 대기 중에 비상하면서 알레르기 환자나 천식 환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건축물의 재료로 국민 정서에 자리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은 깊다고 하겠다.

그러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계절 푸르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적송(赤松)인데, 이는 소나무를 일컫는 방언이다. 소나무는 지역에 따라 자라는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언(지역명)이 붙어 있다. 금강산 일대에서 수직으로 곧추 자라는 금강송(金剛松),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서 곧추 자라는 춘양목(春陽木), 태안 안면도에서 약간 휘어지며 자라는 안면송(安眠松), 그리고 이와는 달리 모양이 소반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반송(盤松)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우리나라 산야의 소나무는 조선왕조 시절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자라왔으며, 사계절 푸름으로 인해 군자의 절개로 상징됨에 따라 우리의 정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나무 외에도 잣나무, 해송(海松), 섬잣나무, 누운잣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송백류(松柏類)가 자라고 있다.

조림수종으로 외국에서 도입된 종으로는 먼저, 1960년대에 들어서 산림녹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된 리기다소나무가 있다. 그리고 스트로브잣나무, 테에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구주소나무 등 여러 종류가 조림용으로 들어 왔으나 조림 수종으로 식재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나무의 형태가 특이한 백송은 중국에서 600여 년 전에 들어와 조경수로 심어졌으며, 일본 특산인 금송은 1950여 년 경에 조경수로 도입되어 기념 식수로 식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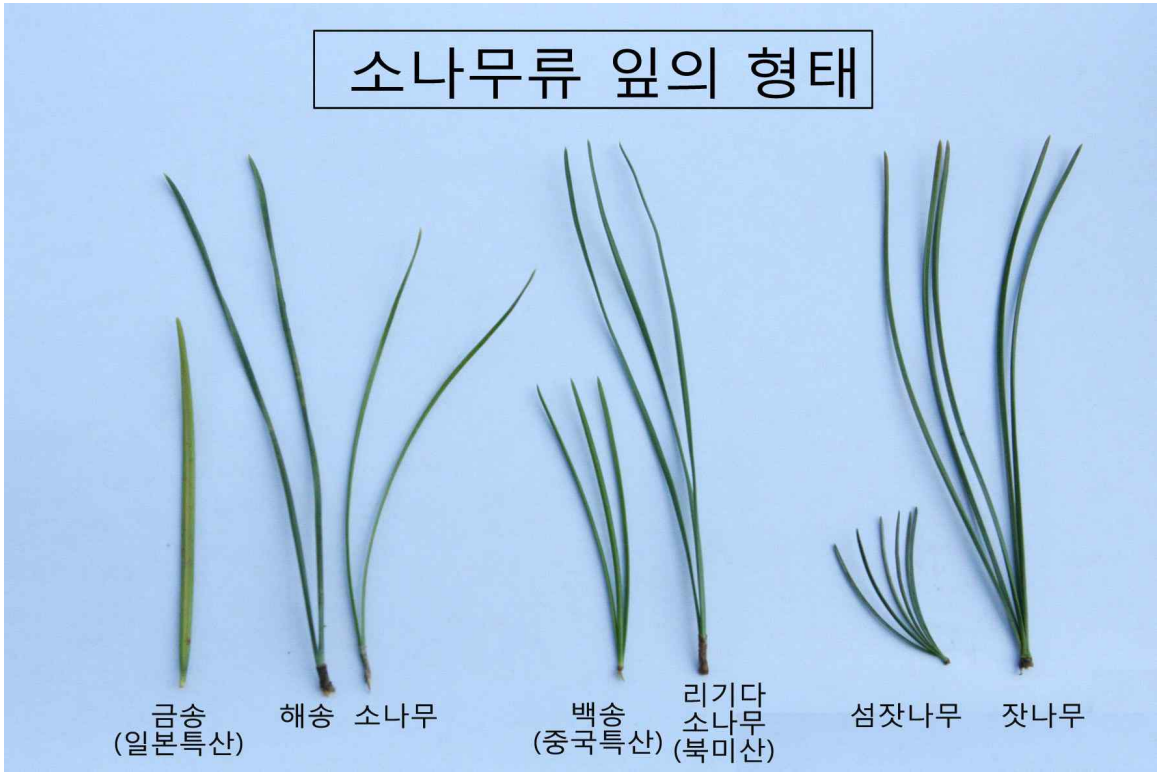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송백류는 없으나 소나무와 잣나무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자라는 종이다. 이 중 소나무는 한반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잣나무는 중부지역인 강원도 산지가 주된 서식지로 전국의 높은 산지에서 자라고 있다. 또한 섬잣나무는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눈잣나무는 설악산 정산 및 강원도 북부 고산지역에서 자라며, 해송은 포항-지리산-내장산-강화도를 잇는 라인의 남쪽 해안가에서 주로 자란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명승 분야 지정 건은 모두 390건인데, 이 중 40%에 해당하는 156건이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이품송을 포함한 26건의 소나무(반송 포함), 제주도 제주시 해송을 포함한 6건의 해송,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5건의 백송 등 소나무류가 모두 합해 37건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은행나무 22건, 느티나무 18건순이다.

한편 리기다소나무는 학명이 *Pinus rigida*인데,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리지다'가 아닌 '리기다'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소나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1930년대 기다소나무(*Pinus rigida*)를 엄마로, 테다소나무(*Pinus taeda*)

아빠로한 리기테다소나무(*Pinus rigitaeda*)가 있었으나 현신규 박사는 미 동북부지방에 테다소나무의 꽃가루를 채집해 추위에도 강한 품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리기테다소나무가 내한성을 갖도록 재발견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럽의 잡종 낙엽송과 에테뉴 라디아타소나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교잡종'으로 평가한다.



소나무류 엽저의 형태

금송 소나무 해송 백송 리기다 소나무 섬잣나무 잣나무

소나무류 줄기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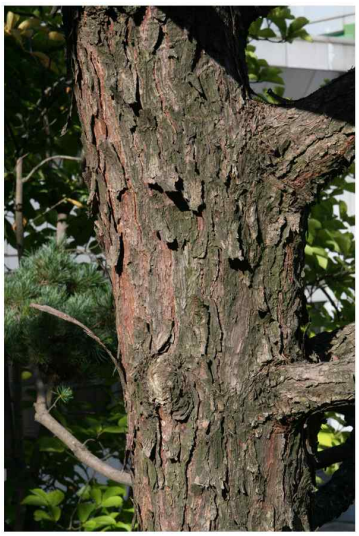
백송

해송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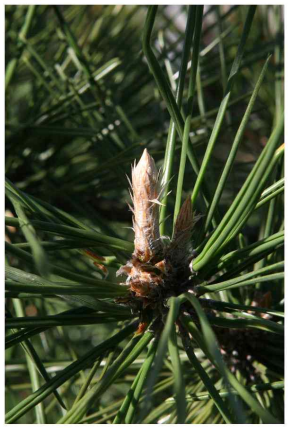
섬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소나무류 정아의 형태

금송

소나무



해송

백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

섬잣나무와 오엽송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섬잣나무는 잎도 길고 구과도 크나 오엽송은 잎이 짧고 구과도 작다.